日, 코로나 장기화로 사찰 소멸 심각

좋은절연구회, 4월 21일 분석해 보도

총 수입 47% 감소 현황
경제적 압박 가중 위기
주요종단 수입도 반토막

박영빈 객원기자


도쿄의 대표적인 사찰인 죠조지(增上寺). 사진출처=프레지던트 온라인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계속되는 확진자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재정이 취약한 사찰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월 21일,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해당 뉴스를 특별 보도했다.

일본 사회에서 사찰의 현대적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 '좋은절연구회' (이하 연구회)는 지난 해 일본 주요 불교종단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좋은절연구회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된다면 향후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제안했다.

'코로나 감염 유행이 사원 수익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예측' 이란 이름으로 공개된 조사 보고서에서 좋은절연구회는 "코로나 재난이 '사찰 소멸'을 보다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 영향은 일반 사회와 국민에게까지 이를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에서 좋은절연구회는 일본 불교계 전체 시장규모를 분석해 약 5700억 엔 규모로 추정했다. 이는 사찰 약 7만 7000여 개소의 수익을 분석한 것으로 이는 주요 종단이 공시하는 재정 규모를 토대로 보면 2005년 약 4000억 엔 규모에서 35% 가량 성장한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47%에 달하는 2700억 엔의 수입 감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좋은절연구회 외 기타 조사기관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불교계의 수입 감소는 46~4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극심했던 도쿄를 중심으로 한 칸토(關東)지구는 가장 불교 교세 침체가 강해 이 지구 내에서만 사찰들의 수익감소가 32.7%에 달했다.

주요종단의 코로나19 영향 하에서의 재정 공시 또한 일선 사찰들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전하고 있다.

일본 조동종이 2020년 6월 발표한 조사보고에서는 소속 사찰의 79%가, 일본 정토종이 발표한 공시자료에서는 소속 사찰의 84%가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했다.

좋은절연구회 측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종단의 월 평균 재정 수입으로 정토종 800만 엔, 조동종 700만 엔, 정토진종 720만 엔으로 추정 집계했다.

이는 주요종단 또한 군소종단에 비해 재정수입이 절반가량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 받던 주요종단 등 불교 전체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한다.

좋은절연구회 측은 "사찰 재정 수입 감소는 '사찰 소멸'의 가속화를 부르며, 이는 결국 일반 시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연구회 측은 "일부에서 '입장료와 상품 판매 등 기타 수익'을 이야기하지만, 사찰의 주요 수입은 상장례와 제사 등의 법요 보시금"이라며 "지금과 같은 일본정부의 '3밀 정책(밀폐, 밀집, 밀접)'이 지속되는 한 입장료는 커녕 일반적인 주요 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좋은절연구회 측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한 사찰이 소멸하면 사찰이 운영 중인 각종 문화센터와 지역상권 등도 영향을 받기에, 지역경제공동체 유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태국불교계, 연이은 부패로 몸살

출가자 금융스캔들까지 터져


체포되는 매치우 스님. 사진출처=치앙라이 타임즈

태국 불교계가 연이은 승단의 부패 문제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월 29일 '방콕 포스트', 'UCA 뉴스' 등의 외신들은 최근 태국에서 출가자들에 의한 금융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불교계 금융 스캔들은 미화 31만 달러(한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사건이다.

방콕 근처에 소재한 명상센터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라고 주장하는 3인의 여성 출가자들에 의해 일어났다. 이들은 약 400명의 신자들에게 저명한 고승들이 함께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라미드식 투자사기를 벌였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금을 배당받지 못한 신자들이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주범격인 매치 우 스님은 "보시자들에 의해 모인 기금들은 모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에 사용됐다. 고수익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탐욕스러운 생각"이라며 사기혐의를 부인했다. 매치 우 스님은 "보시는 그들의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며, 초기의 투자금은 모두 길상한 때를 자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치 우 스님은 이미 태국 북부의 나콘파놈주에 이미 거대한 명상센터를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종교국 담당자는 "매치 우는 구족계는커녕, 실제 출가생활을 한 적 없는 가짜 출가자"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태국국가불교청의 부패관료들과 여러 대형사찰의 고위 승려들이 비밀리에 불교청에 할당된 예산을 사찰들이 유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2017년 한 사찰이 예산 보고를 하며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최근까지 밝혀진 사건의 전체 규모는 2억 7천만 바트(한화 약 9억 4천만 원)다.

또 태국불교계서는 한 저명한 스님이 방콕 에메랄드 사원에 봉안된 에메랄드 불상의 대형 모조품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보시금을 모아 호화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영빈 기자

미얀마 불교계, 무슬림에게 흰 장미 전달

종교간 화합 위한 노력 이어가

2019년 라마단 폭력사건 참회
이슬람 화합서 종교화합 확대


2019년, 무슬림들에게 흰 장미를 건네는 사야다타 스님. 사진 출처=글로벌 보이스

로힝야족 사태를 비롯해 미얀마 내 이슬람교도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 온 미얀마 불교계가 종교 간의 반목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흰 장미 캠페인'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에 대해 지난 4월 27일 일본의 '글로벌 보이스'가 보도했다.

'흰 장미 캠페인'은 2019년 이슬람교의 최대 금식기도 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일부 불교극단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무장 시위대가 라마단 예배를 보는 이슬람 예배당을 습격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약 100여 명의 시위대는 양곤 시내에 라마단 예배를 위해 개설된 3곳의 임시 예배당을 습격했으며 몽둥이와 칼 등으로 무장한 채 예배당을 폐쇄하라고 협박했다. 이 시위대의 일부에는 극단주의 출가자들도 있었다. 습격당한 임시 예배당은 정부와 지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시설이었다.

한편 이러한 폭력에 반대한 불교단체와 시민들은 바로 이슬람교도들과 예배당에 평화를 상징하는 흰 장미를 보내는 '흰 장미 캠페인'을 시작했다.

종교 간의 대화를 이끄는 판닷다 사야다타 사야도 스님을 대표로 한 이 캠페인은 라마단 기간 동안 이웃인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혐오와 공포를 그치고 격려와 지원의 마음을 전하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흰 장미 캠페인을 진행하는 미얀마 불교계는 "평화를 위한 흰 장미는 사랑과 공정, 조화로운 사회를 중시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의한 운동"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곤 청소년 네트워크도 "미얀마에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를 위한 곳은 없다"라는 구호를 SNS 프로필로 사용하는 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곧 양곤뿐만 아니라 만달레이, 사가잉 등 주요 도시로 번져 나갔으며 미얀마인 공동체가 있는 주변 국가에서도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캠페인은 이슬람교 혐오뿐만 아니라 민족과 종교에 관계없이 평화를 격려하고 지원한다는 뜻으로 확대돼 전개 중이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라마단 기간을 맞아 복잡한 국내사정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보이스 측은 흰 장미 캠페인을 이끄는 시민단체의 발언을 인용해 "미얀마에 부도덕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다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때, 사회의 명확한 도덕적 변화가 올 것"이라며 "캠페인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이들이 보였다고 전했다.

박영빈 기자

달라이라마,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코로나 구호기금 기부 독려도


관저에서 인사를 보내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4월 27일 '인디아 투데이', '더 트리뷴' 등의 외신은 "달라이라마가 4월 27일 관저에서 2차 접종을 완료했고, 코로나 구호기금 기부도 독려했다"고 전했다.

3월 6일 인도 다람살라의 코로나 백신센터서 1차 접종을 한 달라이라마는 4월 27일 자신의 관저에서 2차 접종을 완료했다. 1차 접종시 달라이라마는 "특별한 부작용은 보이지 않으며, 모두 용기를 가지고 백신을 맞으라"며 백신 거부 풍조에 반대하고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다.

2차 접종은 달라이라마 양방 주치의인 체텐 도르제 박사가 이끄는 의료진이 진행했다. 달라이라마와 함께 관저 직원과 보안요원들도 백신을 접종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날 인도정부가 설립한 코로나 비상상황 시민지원 및 구호기금(PM-CARES)에 기부하며 대중들의 기부도 권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PM-CARES에 대한 기부는 인도 형제자매들을 향한 연대의 표시"라며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노력, 특히 일선에서 용감하게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는 일평균 3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의료붕괴도 우려된다. 인도 정부는 달라이라마 기부와 함께 PM-CARES 기금을 가장 먼저 의료용 산소를 보급하는 데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박영빈 기자